

KISTEP 통계 브리프 2007-11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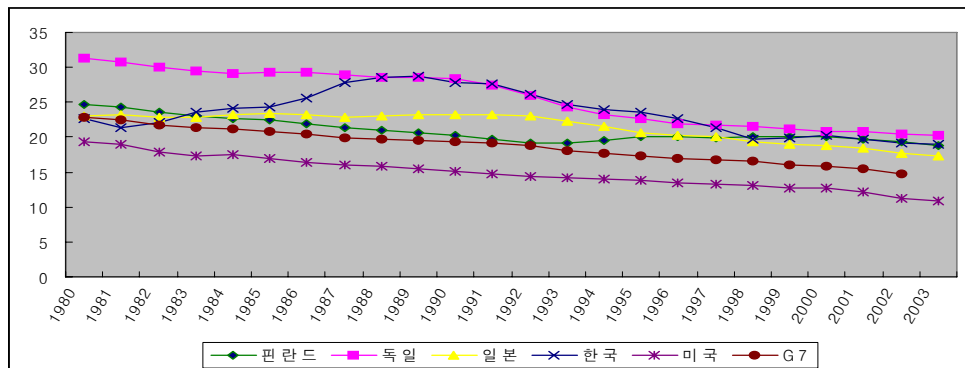
OECD 국가의 제조업 특성 변화 (I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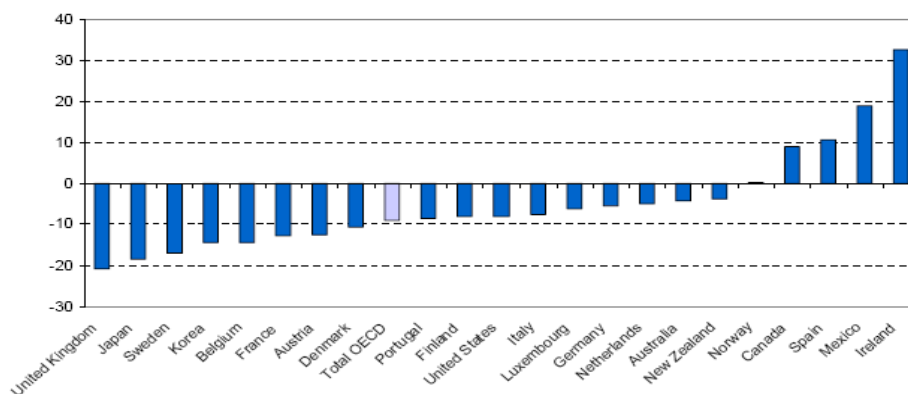
□ OECD 국가의 제조업의 추세

- OECD의 주요국가의 제조업 고용비율은 감소 추세임
 -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90년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섬
 - 9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제조업의 고용비율이 감소함.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, 스웨덴, 일본과 함께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국가임
 - 비OECD 국가 제조업 고용도 증가하지 않아 OECD의 제조업의 고용의 감소의 주요인은 생산성 증가 (Pilat, D. 등, 2006)
- OECD의 주요국가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고용과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임
 - 우리나라는 80년대 증가 추세였다가 그 이후 약간의 감소 후 약 27~28%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90년대 초반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그 이후 증가 추세
 - OECD 국가의 감소세와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(특히 중국)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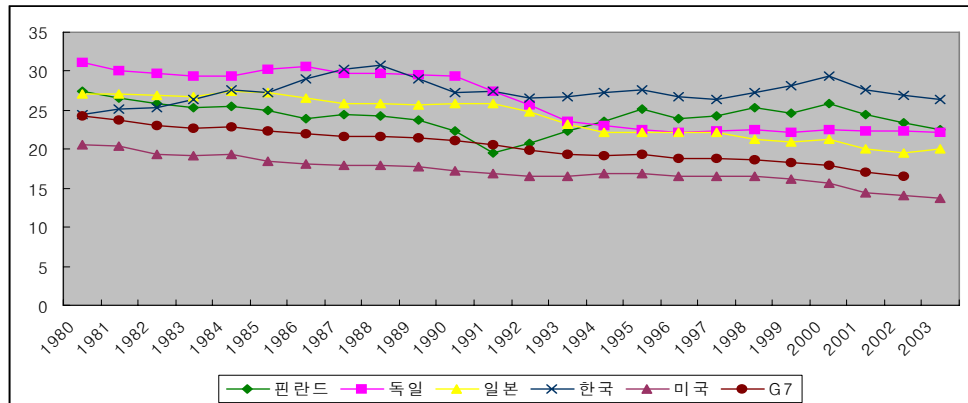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OECD의 주요국가의 제조업 고용비율 (1980~200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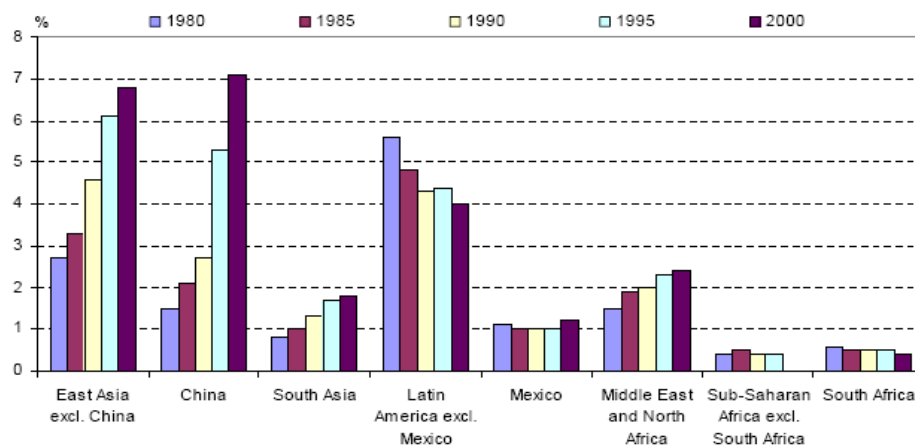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제조업 고용 비율의 변화 (1990~2003)



<그림 3> OECD의 주요국가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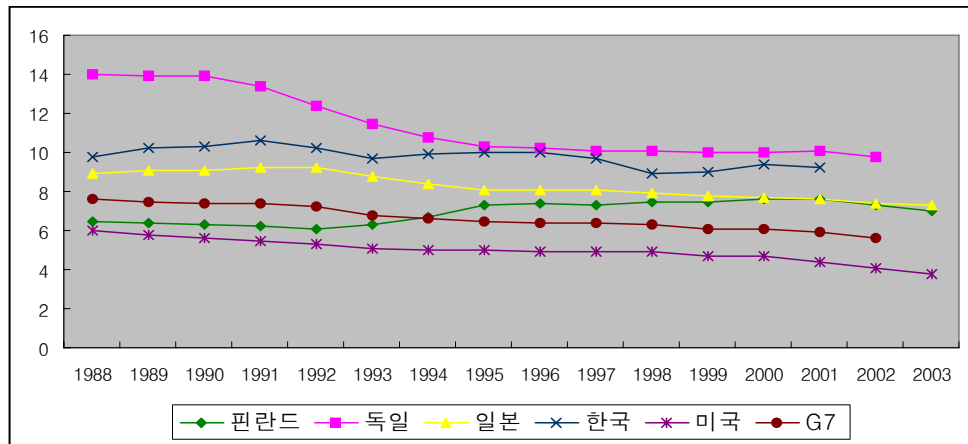
<그림 4> 주요 개발도상국(지역)의 전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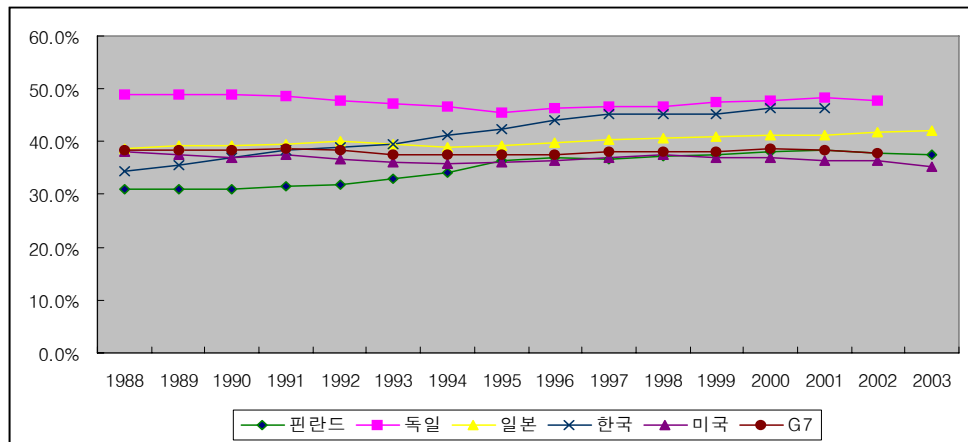
□ OECD 국가의 제조업내의 변화

- 전체 산업 대비 하이테크와 미디엄-하이테크 산업의 고용비율은 제조업의 고용비율과 비슷한 양상임
 - 제조업 대비 고용비율은 거의 비슷하거나 (미국, 독일, 일본) 증가세 (한국, 핀란드)이며 우리나라의 증가세는 빠른 편임
- 전체 산업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(하이테크과 미디엄하이테크 산업)의 부가가치 비율은 국가마다 다른 양상임
 - 미국, 일본 등 G7 국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율이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고 핀란드와 한국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편임
 - 제조업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(하이테크과 미디엄하이테크 산업)의 부가가치 비율은 대체로 증가세이며 한국과 핀란드는 빠른 증가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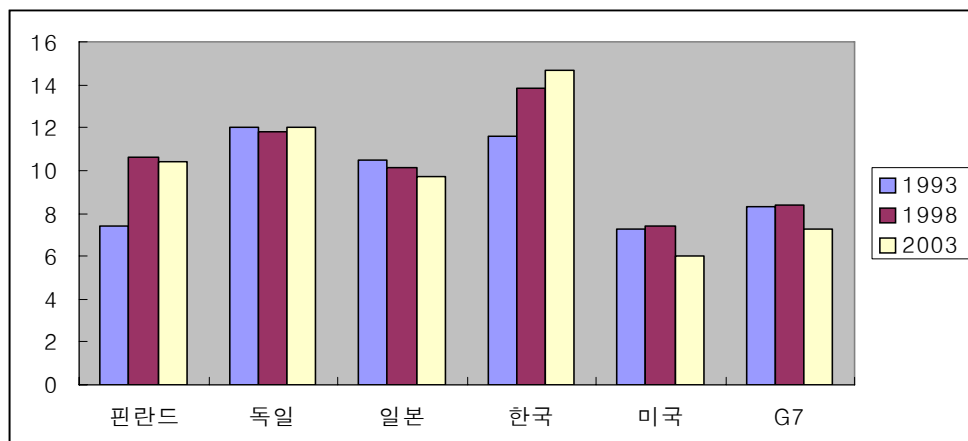
<그림 5> 전체 산업 대비 하이테크와 미디엄-하이테크 산업의 고용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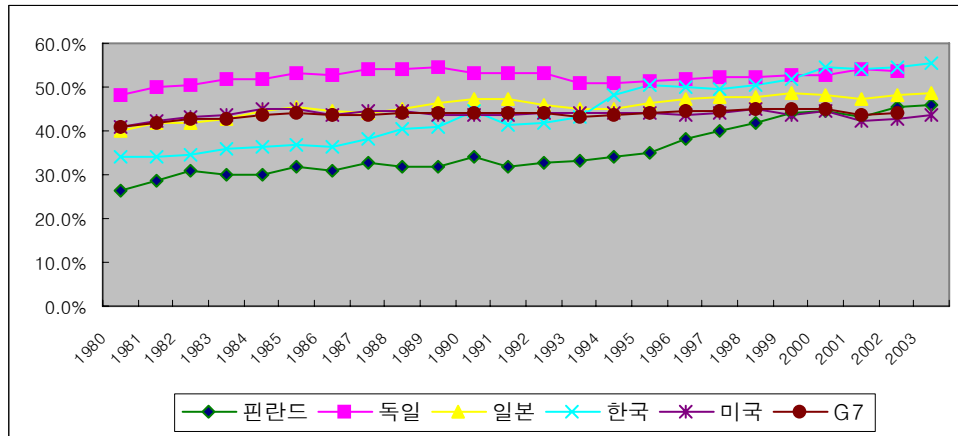
<그림 6> 제조업 대비 하이테크와 미디엄-하이테크 산업의 고용비율



<그림 7> 전체 산업 대비 하이테크와 미디엄-하이테크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



<그림 8> 제조업 대비 하이테크와 미디엄-하이테크 산업의
부가가치 비율



□ 시사점

- OECD 국가의 전체 경제활동 대비 제조업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고 있으며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 - 고용의 측면이나 부가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감소 추세임
 - 비 OECD 국가(특히 동아시아)의 전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부가가치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용의 전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- OECD 국가의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점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
 - 고용과 부가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제조업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증가세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임

* 자료원 : Pilat, D. 등(2006), "The Changing Nature of Manufacturing in OECD Economies", OECD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, 2006/9, OECD Publishing.
OECD, STAN Indicators database, December 2005.

* 자료관련 문의 : 혁신지표팀 (02-589-2829, 2949, 2892)